

분과

1

동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사회 : 최권진(인하대학교)

조지아에서 한국어 확산 상황

Tamta Abuladze(Ilia State University, Georgia)

머리말

우리 나라, 조지아와 대한민국 관계가 1992년부터 시작되고 요즘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조지아 관계는 올해 12월에 30년이 될 것이다.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교육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한국어에 관심이 왜 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언제 시작했는지 알려 드릴 것이다.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상황이 완전 변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어가 더 인기가 증가한다.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없어서 그런지 한국어를 다른 외국어를 통해서 가르친다.

코로나19에 상황때 여러 단장점도 생겼다.

단점은 온라인 교육 자료이고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보내기 힘들었다. 하지만 대학교 지원덕분에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장점에 대해서 말하면 학생들에게 여러 국제회의에 참여한 기회를 주어서 중요한 경험을 받게 되었다.

1. 우리 나라 소개하기 - 조지아

조지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다. 조지아 역사가 너무 오래되며 재미있으며 겁니다. 우리 나라의 수도가 트빌리시이다. 인구는 2016년 조사에 의하면 1.114(백십일만사천)명이고요. 조지아가 세계의 작은 나라 중에서 하나이다.

조지아는 역사적으로 소련 연방에 있던 나라이며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하였다. 현재 조지아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독립된 나라이다. 지리적으로 조지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과 관광을 목적으로 조지아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중국,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조지아에 많은데 요즘 한국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조지아를 관심 있게 봐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많이 달라진다. 외나하면 관광객이 오기 쉽지도 않고 우리 나라에 코로나 탓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고여러나라에서 올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1.1 조지아 특별한 점

우리 나라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다. 봄이 3월에 시작되는데 좀 춥다. 4월부터 꽃이 피며 따뜻해진다. 사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들이도 많이 다니고 정망이 좋은 산맥 지역에 방문하기도 한다.

여름은 조지아에서 가장 더운 계절이기에 사람들이 휴가로 시원한 산에 많이 가거나 서쪽에 바닷가로 여행을 하기도 한다. 조지아는 농산물도 풍부해서 맛있는 제철 과일 및 야채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맞볼 수가 있다.

가을이 조지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을에는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담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주한다. 아시다시피 조지아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방법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으면 이를 크베브리라고 합니다. 이때는 날씨도 선선해서 단풍 구경을 하고 멋진 전망을 만끽 할 수 있다.

가을이 끝날 무렵에 바로 겨울이 시작되며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온다. 온 나라가 눈에 뒤덮이며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어진다. 조지아는 산맥이 많기에 스키나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산에 가고 거기서 놀 수 있다. 올해는 우리 나라에서 스키-크로스 국제 대회를 대접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스키선수가 많이 왔다.



2.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전 세계에서 한류가(Korean wave) 1980년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에 이 열풍이 조지아까지도 도달을 하였다.

한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지아에서는 한국어에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역사에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 있다.

조지아에 한국 열풍이 불고 있는 가중 중요한 요소는 K-pop 과 한국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유학을 목표로 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좋은 한국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거기서 좋은 경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면 유학도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우리 나라에 오는 관광객도 있고 투자하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또한,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도 있으리라 한국어공부가 취미로 시작한다.하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에 관심

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도 여러분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이다.

3. 한국어를 가르치기

무려 1996년에 처음으로 자유대학교에 아시아-아프리카 학과에 한국어 수업이 생겼지만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표하지 않았다.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저 포함 3명 밖에 없었다.

그 후 2012년부터 급격히 조지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하여 자유대학교 외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몇 개 생겼다.

2014년에 외국어 학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는 학생이 5명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50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봄학기부터 저는 일리아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되었다.

대학교 과정에 따르면 한국어는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다. 즉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누구나 원하면 강습에 참여할 수 있다. 주 2회 2시간 동안 한국어 수업이 개최된다.

지금은 초급반에 1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중급반에는 5명이 있다.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동반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 하고 있다.

무려 1년 넘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면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말처럼 수월하지가 않다. 또한, 교수진 및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경험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았다. 하지만 일리아 국립대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쉽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저는 한국어 문법과 새로운 자료를 설명할 때 비디오 형식으로 녹화를 해서 공유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공부를 재밌게 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의 협력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한국어 교과서 발굴 과정이다. 조지아어로 되어있는 한국어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된 어 있는 책을 사용한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해서 이해해야 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저희는 가나다 한국어 for Foreigners; Ihwa Korean , Grammar in Use 등 여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4. 국제 회의, 문화적인 행사 그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램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운 한국어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에는 주 조지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문화 행사에 저희 학생들이 참여를 하여 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작년 말에 일리아 국립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Hankuk)가 협력을 하여 한국어에 대한 발표를 하여 학생들도 참가할 기회를 주었다.

올해 3월 말에도 일리아 국립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또 국제회의를 가져 우리 학생들이 조지아와 한국 관계, 그리고 그 두 나라 추후 개발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유감스럽게도 대면으로 하는 문화 행사가 많이 없어서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화상 회의 및 문화 행사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조지아에서는 일 년에 한번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신청을 하면 참여를 하여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인증받을 수 있다.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유학의 기회가 생겨서 한국어 능력시험 인기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지아에서는 KGSP라는 석사 장학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가 있으며 매년 서류를 보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는 일리아 국립대학교의 졸업생을 합격하여 9월부터 한국에 유학을 할 예정이다.

석사와 박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주조지아대한민국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결론

우선 저희 대학교에서는 봄 학기말에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에 관한 여러 분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조지아어와 한국어 사전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준비 과정에 있다.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게 하는 게 저희 희망이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조지아어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일리아 국립대학교와 같이 협력을 하여 교과서를 만들 생각이다. 이런 교과서가 생기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약할 드리자면 한국어는 조지아에서 인기가 급상승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한국에 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많은 학생에 가서 멋진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토론〉 “조지아에서 한국어 확산 상황”에 대한 토론문

전문이(예레반국립대학교)

이 발표에서는 조지아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그 원인을 소개하고, 나아가 현지어로 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조지아어 사전 편찬, 한국학 관련 화상회의 등 지역 내 한국어 교수학습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과 실제로 진행된 한국 내 대학교와의 공동 화상회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는 모습을 뵈게 되어 아주 기쁘고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준비하고 계신 여러 활동들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조지아인 한국어 학습자 관련: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로 한류의 영향, 유학, 취직 등 다양한 요인을 나열하셨습니다. 한국어 학습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요구 설문 조사 등과 같은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지아 내 한국어 교육 기관, 최근 10년간 한국어 학습자 수의 변화, 학습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최종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조지아어 한국어 교재 관련: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 중 하나로 조지아어로 된 한국어 교재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역시 조지아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지어로 된 한국어 교재가 없어서 영어나 러시아어로 설명이 된 교재를 사용하거나 한국어로만 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 문법이나 어휘 등 현지어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 역시 수업 시간에 현지어로 된 교재가 절실하게 필요한가에 대한 점입니다. 교실 수업에서는 한국어로만 진행을 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수업 이후 참조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한국어-조지아어 사전 개발: 2000년대 초반에 조지아에서 계로이 교수님께서 한국어-조지아어 사전 편찬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리야 대학교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사전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전인지 궁금합니다.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대학교 차원 이외의 다른 기관의 도움이 요구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4. 한국학 관련 화상회의 개최: 이번 학기 말에 한국학 관련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회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국제회의:** 해외에 있는 대학교와 한국 내 대학교 간의 이러한 협력은 모범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일리야 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교에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 지역학의 위치: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학과를 중심으로

Bahar Aliyeva(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Azerbaijan)

1. 들어가기

본 논문의 목적은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학과를 중심으로 한국학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어가면서 한국어 통번역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언어만 알아서는 전문적인 통번역사가 될 수는 없다. 통역 및 번역 과정은 단순히 말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포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 또는 연사나 저자의 생각과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 또한 언어 학습에만 국한되면 안 되며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 더 나아가서 문학을 배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통역(번역) 과정에서 요구되는 배경지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아제르바이잔에서 통번역 교육 과정에서 지역학 교육은 과소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본 대학 통번역 교육 과정에서 지역학 과목은 학사과정 중 단 한번에 걸쳐서 45시간으로 개설되고 있는데 그 시수만 봐도 지역학(한국학) 교육이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통번역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역학을 통번역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학습자들이 언어와 지역학(한국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통번역 과정 시 배경 지식

통번역이란 단순히 어떤 말이나 글을 출발어로부터 도착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연사나 저자가 의도한 바, 생각한 바 혹은 그 느낌까지 다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번역사는 먼저 도착어로 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의 이해가 아니라,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 혹은 컨텍스트의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해라는 과정이 배경지식 없이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아무리 언어를 잘 알고 있더라도 해당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 혹은 감각이 없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해낼 수가 없다.

예컨대,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을 번역할때 한국전통집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소설에서 나온 윗방, 아랫방 같은 단어들은 1층, 2층에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잘 못 번역한 적이 있었다. 이런 번역 오류는 물론 해당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배경지식은 통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번역 교육 과정도 언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통번역 훈련과 동시에 배경지식도 쌓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제르바이잔에서 유일

하게 한국어통번역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통번역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언어 교육과 지역학 교육의 연계 방안

3.1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 한국어 통번역과 교육 과정

현재 한국어/ 한국학 교육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한국어통번역학과) 및 바쿠 국립대학교(한국학과) 뿐이며¹⁾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이 진행되는 대학은 공과대학교, 겐제 공대 대학교, 나흐즈반 대학교로 총 3개 대학이다.

〈표 1〉 아제르바이잔 한국어/ 한국학 교육 현황 (2020-2021년 기준)

		기관 수	학생 수	한국어/한국학 인원 수
학위 과정	한국어 통번역과	1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	학사 과정 59 명 / 석사 과정 3 명	5
	한국학과	1 (바쿠 국립대학교)	학사 과정	3
	한국어교육 학과 (대학원 과정)	1 (바쿠국립대학교)	1명	-
	기타(제 2 외국어 등)	3 (공과대학교, 겐제 공대 대학교, 나흐즈반 대학교)	-	6

한국어통번역학과가 유일하게 개설된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는 사범대학교의 소속으로 외국어학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의 모습으로는 1948년도에 설립되었다. 현재 교육학부, 국제관계 및 운영 학부, 언어학 및 신문방송학부, 통·번역학부, 보충 교육 및 실습학부의 총 5개 학부로 운영되고 있다.

통·번역학부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통·번역 전공이 학사 및 석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통·번역 전공의 경우에는 학사 과정이 199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²⁾ 석사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된 해는 2011년이다.

현재 학사 과정 재학생은 총 59 명이며, 석사 과정 재학생은 총 3명이다. 지난 몇 4년 동안 입시 때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한국어통번역학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예컨대,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한국어통번역학과를 선택했다) 이는 한류 열풍 등으로 아제르바이잔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질이다. 이렇게 열공적인 학생들을 받아놓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

- 1) 한국어/한국학을 전공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와 바쿠 국립대학은 서로 전공이 달라서 양 대학의 교육 과정도 서로 다르다. 예컨대,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의 경우에는 언어 위주의 교육의 진행되는 반면에 바쿠 국립 대학의 경우 지역학 위주로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 2) 한국어 과정은 1994년에 통·번역학부 내에 영어학과의 복수전공으로 개설되었다가 2007년에는 영어 통번역학부에서 독립되어 한국어통번역학과로 개편되었다.

부분은 1학년에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만 막상 2학년으로 넘어가고는 그 중 대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열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또 큰 문제는 졸업할 때가 되면 한 반의 졸업생들 가운데 많아도 2-3명만 한국어/ 한국학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한국어통번역 전문가로 활동할 능력을 가진다. 물론 여기에는 향후 취직 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 그런 요인들을 배제하여 교육 과정, 그 중에서도 ‘한국학 교육’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현재 운영되는 한국어 통번역 교육 현황/ 강좌 개설(학사 과정)을 살펴본 다음 문제점 및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교 한국어통번역과교육 과정

학년	과목명	학생 수	교재
1	읽기 (주당 8 시간)	15 명	연세대학교 교재
	쓰기 (주당 8 시간)		
	말하기 (주당 8시간)		
	발음 및 듣기 (주당 8시간)		
	지역학과 문화 간 소통 (한국학) (주당 4시간)		
	통번역 입문 (주당 2시간)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교재 사용
2	문어의 이해와 표현(주당 8시간)	16 명	연세대학교 교재
	구어의 이해와 표현(주당 6시간)		
	직업 통역론(주당 6시간)		최정화, 외국어와 통역 번역 외 다수
	기타 (전공 외 과목) : 정보학, 역사, 국어, 영어		
3	번역(주당 6시간)	15 명	통일된 교재 부재
	주제 통·번역 1 (사회 정치, 국제기구, 경제 등) (주당 6시간)		
	주제 통·번역 2 (환경, 문서 번역 등) (주당 6시간)		
	통·번역 개론(주당 2시간)		
	순차통역과 노트테이킹 기술(주당 6시간)		
	문서와 용어(주당 2시간)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주당 4시간)		
	아제리어-한국어 번역 (주당 4시간)		
	서면 텍스트의 통역 (주당 4 시간)		
	기타 (전공 외 과목): 다문화, 영어		
4	통역(주당 6시간)		통일된 교재 부재
	주제 통·번역 3 (의학, 문학*, 석유 분야) (주당 6시간) *2020년 입학생부터는 문학 번역은 필수 과목임.		
	대중 매체 자료 번역 (주당 4시간)		
	기타 (영어)		

〈표 2〉에서 나타나듯이 1학년을 제외하면 한국학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공하는 언어의 문화, 사회, 역사, 문학 등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채 3-4년에 넘어가서 문학, 사회 정치 등과 관련된 통번역 수업을 수강하게 되어 4학년

말기에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학위논문까지 써야 한다. 결국 배경 지식이 부재한 채 통번역 연습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³⁾

한편 1학년에 배우는 한국학 과목이 학교 규정상 한국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1학년생들은 한국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국어로 이해할 수준이 되지 못 한다. 결국은 비교적 쉬운 내용의 문화 텍스트를 위주로 한국학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통일된 교재도 부재한 것이나, 이는 현재 집필 중이다.

3.2. 언어교육과 지역학 교육의 연계 방안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통번역 교육 과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1학년에만 개설되는 한국학 과목을 2, 3 학년에도 개설하는데 각 학년의 한국어 수준 및 다음 학년에 개설될 통번역 수업을 고려하여 서로 주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어 수준이 아직 초급인 1학년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 과목을 개설하여, 2학년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와 정치”, 3학년의 경우에는 “한국문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한다. 그러면, 2학년에 배운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 3학년 과목 중에 하나인 주제번역(사회 정치, 국제기구, 경제 등) 과목과 연계될 것이고, 한국문학 과목은 문학번역 과목과 연계될 것이다. 따라서 통번역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쌓아가지고 보다 질 높은 통번역 실습의 밑바닥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현재 “한국학 교재”가 집필 중이나 이는 현재의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집필된 것이어서 향후 각 주제에 관한 서로 개별된 교재를 집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통번역 과목 시 실습 자료로 활용된 텍스트들의 구성이다. 예컨대, 한국어-아제르바이잔어로 통번역 실습 시 자료 구성을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계획하여 학생들이 한국학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제 번역-경제” 과목에서는 실습 자료로 한국 경제, 혹은 한국수출 등에 관한 텍스트들을 활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관련 어휘 및 표현들을 습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분야/ 문제 관련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보여주게 한다. 그러면 향후 학생들이 실제 통번역 시 한국과 관련된 그 어떤 주제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과를 중심으로 한국학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어가면서 한국어 통번역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통번역 교육의 있어서 지역학 교육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통번역사의 배경지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 위주의 통번역 교육에서 벗어나고 전공언어의 지역학 교육과 동시에 통번역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공언어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어’만 외우는 것에 그칠 테고, 결국 그런 교육을 받은 통번역사의 통역/번역은 단어 혹은 문장을 통역/번역하는 것이지 ‘언어’를 통역하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3) <표 2>에서 나타나듯이 1-2학년에는 주로 한국어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3-4학년에는 통번역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표만 봐도 이런 교육 과정의 문제점들을 엿볼 수 있다. 우선, 2학년에는 한국어 수업 시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대신 역사, 국어 등으로 전공 외에 과목들의 시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전공 공부에 할당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점은 학교 측에서도 인정한 것이나 아직도 이런 교육 과정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참고문헌 ■

최정화, 2005, 외국어와 통역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향, 2008, 번역이란 무엇인가, 살리.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한국문화사.

미카일 우스티노프 저, 조준형 역, 2020, 번역,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토론〉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 지역학의 위치: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한국어 통번역학과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조형일(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역학, 국제 사업을 중점에 두면 통번역 교육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알리에바 바하르 선생님의 논의에서 잘 포착되었듯 지역학 측면에서 통번역 교육의 내용과 중점을 고찰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고 국제교류, ODA 사업들을 담당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을 설게 운영하고 있는 저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 고견을 청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해 보겠습니다.

통번역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 요구 조건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들 양상 및 추가 요건에 대한 말씀을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기술된 내용으로 볼 때 성적이 높은 학생처럼만 기술되어 있는 바, 한국어 능력은 어떻게 측정되었고,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표1에 따르면 1학년 단계에서 지역학(주 4시간)을 배우고 2학년 단계에서는 정보학, 역사학, 3-4학년 단계에서는 주제별 통번역 연습 안에 지역학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국어 과목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추가될 수 있을까요? 1-2학년에 한국문화와 문학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번역 주제번역과 연계 실습하는 과정을 제안하고 계신데요. 1번의 질문과 연계하여, 한국어 6급 수준의 학습자가 통번역 과정으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주제 중심의 통번역 교육이 1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와 문학적 분야의 지식은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통역과 번역을 하나로 묶어 통번역으로 처리하기에는 이 두 영역의 특성은 너무도 다릅니다. 따라서 통역 전공과 번역 전공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목표	
8개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노어, 서어, 중어, 일어, 아랍어)를 포괄하는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통역번역 교육기관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수 언어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연계하여 특수어 협동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국어와 전공외국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력을 입학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며, 입학 후 강도 높은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 통역사 및 전문번역사를 양성,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공통필수과목	1. 통번역 입문 (Introduc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2. 주제특강 I, II (Special Lecture)
공통선택과목	1. 통번역강독 I, II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eading)

	2. 모의회의 I, II (Mock Conference)
전공필수과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차통역 A-B/B-A I (Consecutive Interpretation I) 2. 순차통역 A-B/B-A II(Consecutive Interpretation II) 3. 순차통역 A-B/B-A III(Consecutive Interpretation III) 4. 순차통역 A-B/B-A IV(Consecutive Interpretation IV) 5. 일반번역 A-B/B-A (Basic Translation) 6. 산업경제번역 A-B/B-A/C-A (Translation of Economic and Commercial Texts) 7. 동시통역입문(Introduc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전공선택과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별 발표/시사토론 I, II (Presentation/Debate in Current Affairs) 2. B언어숙달, II (Advanced B Language Discourse) 3. 한국어숙달 I, II (Advanced Korean Language Discourse) 4. 정치법률번역 A-B/B-A/C-A (Translation of Political and Legal Texts) 5. 전문번역 (Advanced Translation) 6. 문학번역 (Literary Translation) (비영어과) 7. 인문사회번역 (Translation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비영어과) 8. 과학기술번역 A-B/B-A/C-A (Transl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exts) 9. 미디어번역 A-B/B-A (Media Translation) 10. CAT (Computer-Aided Translation) 11. 번역프랙티컴 I, II (Translation Practicum) 12. 전문순차통역 A-B/B-A I, II (Consecutive Interpretation for Specific Areas) 13. 동시통역 A-B/B-A I (Simultaneous Interpreting I) 14. 동시통역 II A-B/B-A(Simultaneous Interpreting II) 15. 전문동시통역 A-B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Specific Areas) 16. 지역사회통역 A-B (Community Interpreting A-B) (비영어과)
선택과목 (한영과 번역전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학번역 A-B (Translation of Korean Studies Texts) 2. 번역비평 (Translation Criticism and Evaluation)
전공필수과목 (한영과 번역전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번역학입문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2. 한국어작문 3. 영어작문 4. 문학번역 A-B/B-A I, II, III (Literary Translation) 5. 인문사회번역 A-B/B-A I, II (Translation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 번역학세미나 (Translation Studies Seminar)

발표를 좋은 연구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성근 토론을 맺습니다. 고맙습니다.